

반려동물복지 컨퍼런스-1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
복지와 유기동물

김진석 / 동물복지와권리연구소장,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와 가까워 질 때 비인간동물과의 처음이면서 매우 강한 유대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 6가지의 기본적 태도를 보인다: 동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동물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동물에 대한 강한 애정, 동물에 대한 친족 느낌; 동물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동물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기. 세계 전역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적 가치를 바탕으로 동물과 관계를 맺는다.

비록 동물이 도덕적 또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여러 조건들이 그들의 복지에 이바지한다(또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치에 맞는다.

이 원고는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여 동물복지와 관련된 기본적 논제들에 대한 고려와 어떻게 동물들이 취급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윤리적 결정에서 동물복지의 과학적 연구를 분리하려는 일부 연구자들의 시도 뿐만 아니라 유기반려동물을 포함한 특별한 논제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복지 대 권리

두 가지의 상반된 철학적 견해가 비인간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시대적 논의를 지배해 오고

있다: (1) 동물복지 (복지주의)와 (2) 동물권리 (권리적 견해). 동물복지는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연구에 이용하고 음식으로 팔기 위해 사육하고, 그리고 스포츠나 이익을 위하여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털로 잡는 것은 이러한 행동과 관련된 전체적인 이익이 이들 동물들이 겪는 고통보다 클 경우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복지주의자들은 동물에게 어떠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하고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물권리를 주장하는 견해는 비인간동물의 인간 이용은, 그것이 실험실이든, 농장이든, 야생이든, 원칙적으로 잘못이며 실제로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고통의 정도와 죽음에 관한 질문은 핵심을 필연적으로 놓치게 만든다. 비인간동물이 애당초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권리적 견해는 인간의 이익은 동물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이용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예, 돈 또는 편의, 미각의 즐거움, 지식의 발전) 부당하게 얻은 것이다.

동물권리에 대하여 고려를 한 이후에 동물복지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복지를 동물권리의 대안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지” (최소한 부분적으로)를 권리에 대비를 시켜 정의를 내린다.

“동물복지는 수의과학의 기본이다. 애완동물주인과 개업수의사, 그리고 모든 동물의 후견인으로서 우리(수의사)들은 동물건강의 가치를 익히고 동물복지의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 동물권리의 깃발을 높이는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 미국수의사협회(AVMA)의 공식적인 “동물복지와 동물권리에 대한 정책” 역시 동물복지를 권리로부터 구분하는 것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다.

“동물복지는 적절한 주거 시설의 관리, 영양, 질병예방과 치료, 책임 있는 관리, 인도적인 보살핌 그리고 필요할 경우 인도적인 안락사를 포함하는 동물복지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인간의 책임이다. 동물권리는 여러 동물권리 단체들에 의한 선언에 의하여 특징지어진 철학적 견해이자 개인적인 가치이다. 동물복지와 동물권리는 유사어가 아니다. 미국수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동물복지의 촉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수의사협회는 음식, 옷감, 반려관계, 오락 그리고 인간과 동물 양쪽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연구와 같은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책임 있는 사용과 부합되지 않을 때 동물권리 옹호자들의 철학적 견해와 개인적 가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 가지의 자유

공동적으로 “다섯 가지 자유”로 알려진, 사육의 최저 기준은 여러 차례 지속적인 개정이 수행되고

지금은 영국과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는 원천적인 자유는 결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 지거나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1993년 미국 농장동물위원회 (FAWC)은 기준은 좀 더 높게 설정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면서 브람벨 원전의 자유를 개정하였다. 현재 다섯 가지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상징한다.

1. 갈증, 배고픔 그리고 영양불량으로부터 자유 - 충분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신선한 물과 음식에 쉽게 접근
2. 불안으로부터 자유 - 적합한 피난처와 안락한 쉼터를 마련함에 의하여
3.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 자유 - 예방과 빠른 진단 그리고 치료에 의하여
4.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과 동물자신의 종의 동반자를 마련하여 줌에 의하여
5.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자유 -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확인하는 것에 의하여

반려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요 윤리적 주제들

1. 개나 고양이의 품종의 어떤 표준이 건강을 심히 위협스럽게 하거나 복지에 허용할 수 없는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가? 복지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품종 표준에 관하여 수의전문가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 수의사는 단미와 단이를 해야만 하는가?
3. 어떤 조건하에서 복지적인 고려가 고양이의 발톱 제거와 개를 짓지 못하게 처치하는 것에 반대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4. 자신의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의학적 관리를 마련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지 않을 때 수의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5.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애완 동물의 적절한 관리의 무시가 그들의 복지에 위해를 가져올 주인에게 수의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6.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동물의 안락사에 우호적인 (복지적으로 당연한) 고려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환축에게 고통을 주거나 삶의 질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주인이 선택하였을 때 수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가?
7. “요구 대로” 건강하고, 행실이 좋은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은 동물복지의 보호자로서 복지를 촉진하는 수의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8. 환축의 복지에 대한 당연한 관심에 부합되는 광견병과 중성화 진료의 낮은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9. 소위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번식되거나 운반되어 온 강아지들의 복지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동물 - 인간 유대의 상대적 의미

“동물 - 인간 유대”는 적게 보아 인간과 동물 사이에 각자의 삶의 중심적인 측면에 중요한 이로움을 가져오고 어떤 의미에서 자발적이며, 양쪽이 그들 자신의 권리에서 서로를 존경과 이로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관리,

신뢰, 헌신 또는 사람의 대상으로서 대접을 하는 지속적이고 쌍방향인 관계를 의미한다.

1. 이 관계는 산발적이거나 우연일 수가 없으며 지속적이며 진행 중인 것이어야 한다.
2. 이 관계는 양쪽에게 그냥 이로움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로움을 끌어 내야하며, 각자의 삶의 중심 측면에 이로움이 되어야 한다.
3. 이 관계는 어떤 면에서 자발적이어야 한다.
4. 유대는 양쪽이 상대 쪽에 대한 관심을 베푸는 결합력 쪽으로 쌍방향이어야 한다.
5. 진정한 유대관계를 지니는 양쪽은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자신의 권리 내에서 마땅히 존중 받고 이로움이 되는 중요한 존재로서 취급해야만 한다.
6. 존중과 이로움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실한 유대관계는 최소한 상대에 대한 경애와 신뢰 그리고 진실로 선한 감정에 유사한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종종, 유대관계는 사랑을 포함한다.

반려동물 수의 폭발적인 증가

1. 유기반려동물

인간은 수세기 전부터 개와 고양이를 길들여 왔다. 자연환경으로부터 빠져 나오면서, 개와 고양이의 수는 더 이상 포식자나 먹이의 한계에 의하여 그 균형이 유지 되지 못하게 되었다. 제멋대로 나누게 되면, 고양이와 개는 수 많은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를 낳는다. 2년 동안 두 마리의 고양이와 그 새끼들은 수천 마리의 무리를 이룰 수 있다. 7년 동안 번식력 있는 한 마리의 개와 그 새끼

들이 4,372 마리의 무리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이라면, 고양이와 개 중에 수의 과잉과 유기동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성화 시술에 의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유기반려동물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1. 매년 2천백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미국에서 태어난다. 이 중 1천5백만 마리는 원하는 곳이 없어 결국 쉼터나 보호소로 가게 된다. 입양되지 못한 8백만 내지 천만 마리는 결국 죽게 된다.
2. 영국 런던에서만 매일 약 2,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견되고 전국적으로 5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견된다. 이 중 약 15 퍼센트만이 주인이 찾아가고 다른 개들은 입양되거나 죽임을 당한다. 영국 동물보호협회는 영국에서 하루에 약 1,000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3. 과도한 수의 동물은 때로 사람들의 잔인한 행동을 유발한다. 고양이의 한 배 새끼들이 익사한 채로 떠다니고 개들이 버려진다. 주인들은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이 야생동물처럼 스스로 살아가거나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거두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길들여졌지만 버려진 이러한 동물들은 항상 굶주림이나 추위, 자동차 사고, 질병 또는 그들의 무기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한 잔혹한 시달림에 의하여 죽게 된다.
4. 어떤 국가나 (주에서) 유기동물들이 실험실에 주어지거나 팔려서 고통스러운 실험에 억

지로 참여하게 된다. 매년 미국에서 수십만 마리의 유기애완동물들이 수술연습이나 실험, 그리고 시험을 위하여 대학과 연구소로 가고 있다.

2. “보호소 압류” 논란

마구 늘어나는 개와 고양이의 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도덕한 중개상이 반려동물을 훔쳐서 그들을 의과대학이나 연구자들에 팔기도 한다.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이 실험을 위하여 건강하고 사람에게 친근한 동물 중을 원하는 실험실을 위한 특별히 목표가 된다. 동물이용연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보호소 압류”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는 입양되지 못한 동물들을 연구시설에 주거나 파는 것을 보호소나 동물쉼터에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관행을 뜻한다. “보호소 압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호소 동물들을 연구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나 지방정부의 규정을 이끌어 내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보호소동물 공급에 대한 반대는 다음과 같은 논란을 제공한다:

1. 보호소 동물들은 그들이 유전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그들의 이용 목적을 손상 시키는 질병과 신체허약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목적으로 사육한 동물들에 비해 적합하지 못하다.
2. 보호소 동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들이 발견한 유기동물들을 되돌려 보내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낙심 시킨다.
3. 보호소 동물 공급은 동물들을 고통과 학대를

받기 쉽게 한다.

- 4. 보호소 동물 공급은 '동물복지의 유능한 촉진자' 이어야 하는 동물보호 단체들의 근본 과업에 조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1. 보호소나 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라.

애완견 상점에서 개나 고양이를 구입하는 대신, 시 동물보호소나 개인 동물쉼터에서 입양을 하라. 강아지 공장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안락사에 직면하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당신이 구할 수 있다. 만일 순수혈통의 개를 원한다면 (꼭 필요한 것인가?), 번식자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배경을 조사해 보라. 동물들이 애정 어린 돌봄을 받았는지 사람과 많은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뛰어 놀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라. 동물의 부모를 만나 보고 그들이 마음에 드는지도 확인하라. 자신의 동물들에 대하여 자부심을 지닌 훌륭한 번식가들은 자신의 동물들을 애완동물 상점에 거의 파는 일이 없다.

2. 당신의 개나 고양이를 "중성화"하라.

반려동물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개나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책임은 더 이상의 번식을 막기 위하여 그들의 동물을 중성화시키는 것이다. 중성화 시술은 매우 비용이 저렴한 절차로서 고양이 새끼나 강아지를 먹이고 돌보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 그리고 집 잃었거나 버림을 받은 동물의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절차는 당신의 반려동물에도 이

로움을 줄 수 있다.

- 1. 중성화 시킨 암캐는 유방암 발생의 기회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자궁이나 난소의 감염을 방지한다.
- 2. 중성화 시킨 수캐는 전립선과 고환 질환의 발생을 감소 시킨다.
- 3. 중성화 시킨 이후의 많은 수캐와 수고양이들이 훨씬 더 우호적이다. 중성화하지 않은 수캐는 더 많이 돌아다니려 하고(차에 칠 위험이 높다) 중성화 시킨 개보다 더 많이 싸운다. 중성화 시키지 않은 수 고양이 역시 좀 더 빈번하게 싸우고 자주 몸을 쇠약하게 하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린 상처를 입게 된다.
- 4. 많은 동물보호단체들과 심지어는 일부 도시가 낮은 비용의 중성화 시술 또는 할인 쿠폰을 마련하고 있다.

3. 잘 돌보도록 하라.

- 1. 반려동물에게 성형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성형수술(단미나 단이)을 받은 개들은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다. 만일 귀와 꼬리가 짧은 품종을 가질 수 있다면, 그대로 두라. 예를 들어, 자연스러운 깃털 꼬리를 가진 푸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라.
- 2. 당신의 반려동물이 신분표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항상 당신의 동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을 잃어 버렸을 때 추적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믿을 수 있는 수단으로 문

신을 한 신분번호를 마련할 수 있다.

3. 비록 창문을 약간 열어 놓았다 해도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결코 개를 혼자 차 속에 남겨 두지 말라. 섭씨 29도인 날에 차 속은 차 문을 약간 열어 놓았다 해도, 10분 이내에 57도에 도달하며, 30 분쯤에 67도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의 개가 열에 의한 탈진 상태라면 체온이 떨어질 때 까지 찬물을 뿌려주는 응급조치를 즉시 하라.
4. 먹이에 관심을 가지라. 많은 반려동물들이 과체중이다. 그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잦은 간식이 아닌 영양 높은 먹이가 필요하다.
5. 충실한 시간을 함께하라. 당신의 반려동물은 놀고 사랑할 수 있는 충실한 시간을 당신과

함께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의 반려동물의 훈련과정을 가지는 것은 당신의 관계에서 이해와 의사소통의 깊이를 한층 더 깊게 할 것이다.

6. 벼룩 목 띠와 샴푸 그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 피부를 통하여 흡착되는 강력한 살충제를 과량으로 사용하기 쉽다. 이러한 상품들을 시험실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개와 고양이가 죽는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빗이나 식물성 샴푸로 매일 털을 다듬어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만일 독성이 있는 외부기생충 구제제를 쓴다면 구토나 경련, 설사 또는 호흡기계의 문제가 나타날 때는 즉시 그 제제를 닦아주고 수의사에게 연락을 하라. **데수**

<참고문헌>

1.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Policy on Animal Welfare and Animal Rights, 1994 AVMA Directory, Schaumburg, IL, The Association, p56.
2. Duncan L/H, Welfare is to do with and what animals feel, J Agric Environ Ethics 6 (special supplement 2): 12, 1993.
3. Clough C. and Kew B, The Animal Welfare Handbook, Fourth Estate (London), 1993.
4. Fried C, Lawyer as friend: The moral foundations of the lawyer?client relation. Yale Law J 86:573?587, 1987
5. Grady AW, Tambrallo L, and others, Animal rights jeopardize animal welfare, Vet Econ June 1989:122 Animal
6. Midgely M., Animals and Why They Matter: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3.
7. Katcher A. H., Beck A. M., editors: New Perspectives On Our Lives with Companion Animal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3.
8. Living Planet Press, The Animal Rights Handbook, Everyday Ways to Save Animal Lives, Living Planet, 1993.Press
9. Schwabe CW, Veterinary Medicine and Human Health, 3rd eds., Baltimore, 1984, Williams &Wilkins, p 634
10. Tannenbaum J., Veterinary Ethics, Animal Welfare, Client Relations, Competition and Collegiality (2nd eds.), Mosby, 1995.